

코오롱, 첨단소재 · 화학을 주력으로

Big Step 2010 발표 ... 매출 20조원에 당기순이익 1조5000억원 목표

코오롱그룹이 2010년까지 매출 20조원에 당기순이익 1조5000억원을 달성해 세계 10위권에 진입하겠다는 경영목표를 설정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은 1월21일 과천 그룹사옥에서 그룹 사장단과 임원, 체인지 리더(Change Leader) 등이 참석한 가운데 Lifestyle Innovator를 비전으로 하는 <Big Step 2010>을 발표했다.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

Big Step 2010은 △고객·주주·직원과 가치를 공유 △2010년 세계 10위권 진입 △첨단소재(전자소재·자동차소재·생활산업소재), 화학·바이오(정밀화학·제약·바이오 및 원료의약), 건설·서비스(건설·환경, 패션·유통, 정보통신)를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설정 △미래성장동력이 될 신사업 확보 4가지를 전략사업으로 꼽아 그룹의 2010년 목표를 달성할 방침이다.

실천전략으로는 △선행경영 △무한경쟁 △인재경영 △과정관리를 책정했다.

2004년부터 인력구조조정 실시, 한계사업 정리 등을 통해 경영의 새 틀을 짜는 사업 구조조정을 실시해왔던 코오롱은 2005년에도 고부가가치 소재 사업을 중심으로 한 화학 및 제조분야, 건설분야, 패션 및 유통분야 등 3개 주력 사업분야를 축으로 조직개편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비전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이웅열 회장은 “지난 몇 년은 변화의 필요성을 동감하고 노력해 그룹의 전폭적인 변화에 첫발을 내딛은 기간으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5년은 코오롱그룹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향후 그룹역사에 괄목할만한 도약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Lifestyle Innovator 비전을 가지고 고객·주주·직원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룹으로 새롭게 시작하자”며 “모든 임직원이 변화와 혁신으로 무장해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자”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6/01/24>